

## 쓰레기통 뒤지는 백만장자 ... 재산 상속자는?

독일 다름슈타트의 연금 생활자인 하인츠 B(80)는 겉보기에는 가난한 노숙자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집을 10채나 소유한 백만장자다. 심지어 현재 정기예금 계좌에는 현금 10만 유로(약 11만 달러)가 예치돼 있다.



▲ 쓰레기통에서 찾은 음식물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하인츠 B. 사진=indomirror.com

비밀은 간단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생활 태도 덕분이었다. 전직 전기 기술자였던 그는 전기통신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월 3600유로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 열심히 모은 다음 집을 사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그가 한 달에 식료품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5유로를 넘

지 않는다. 비결은 '쓰레기통 뒤지기'다. 그는 '사람들은 낭비가 심하다. 얼마나 심한지 쓰레기통에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식사를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시지 한 팩을 사서는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며 혀를 찼다.

그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인플레이션 발생 시 가치가 가장 적게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는 그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촌들이 몇 명 있지만 그들은 상속세를 낼 형편이 안 된다. 어쩌면 세입자들에게 집을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며 웃었다.

## 200kg 나가던 남성의 환골탈태

너무 뚱뚱해서 여성과 테이트도, 잠자리도 할 수 없었던 한 남성이 보디빌더로 '환골탈태' 한 사연이 화제다.

브라질 상비센테에 사는 레오나르도 마차도(31)는 한 때 몸무게가 440파운드(약 200kg)나 나간 엄청난 비만인이었다. 그에게 의사는 이대로 살면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그가 체중 감량 결심을 한 까닭은 의사의 경고 때문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와 테이트하고 함께 밤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레오나르도는 "난 여자와 말도 못했고, 몸에 대한 컴플렉스도 컸다. 개인의 순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나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 다이어트 전(왼쪽)과 후의 레오나르도 마차도. 사진=instagram(leomackina)

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환골탈태 후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다가갈 용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29살이던 어느 날 운동 중이던 한 여성 헬스장 회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마침내 테이트에 성공하고 그만 순결을 잃고(?) 말했다.

공유하고 싶다" 고 말했다.

레오나르도는 스무 살이던 해에 좋아하던 여성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이후 한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지만 마침내 '괴물' 같던 자신의 모습을 탈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꿨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질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수년 노력 끝에 변신해 성공해 보디빌딩 대

## “행운 빈다” ...동전 찾느라 항공기 4시간 지연



▲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중국에서 여행객이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바람에 수거하느라 이륙이 4시간 넘게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오전 10시경 중국 하이난성 썬야에서 베이징으로 갈 예정이던 남방항공 CZ8805편이 예정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 16분에야 출발했다. 한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을 향해 동전 몇 개를 던지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승무원이 동전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승객에게 "몇 개 던졌냐?" 고 묻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승객은 "3~5개 던졌다" 고 답했고, 곧바로 항공기에서 공항 경찰에 연행됐다.

중국에서는 '행운'을 빌기 위해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10월에도 광저우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에 동전을 던져 운항이 지연됐다.

2017년에는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한 노인이 150명이 탄 여객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6시간 동안 이륙이 지연됐다. 2019년에는 승객이 던진 동전을 찾느라 운항이 지연되면서 항공사 측은 14만 위안(약 2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일부 공항에서는 "행운을 위해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해치고 복을 달아나게 하는 불법 행위"라는 경고문을 내걸기도 했다.

###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